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조형래 곡성군수

"친환경 명품 농림산업 육성 총력"

"올해는 곡성군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군민 개개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살맛나는 곡성 만들기

조형래 곡성군수는 취임 후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군수는 곡성군의 가시적인 발전을 지역 성장동력의 극대화에서 찾았다.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인 친환경 명품농림산업을 육성해 지역민들에게 고소득을 안겨 주겠다는 것이다.

조 군수는 취임 당시부터 지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의 특성을 감안해 친환경농업을 군의 제1 성장동력으로 삼아 꾸준한 투자를 해 왔다.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3천517ha)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난해 첫 삽을 뜬 친환경농생명복합단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미래 첨단과학농업까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곡성멜론·안심사과·엽채소 등 명품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그리나리'를 통해 명품 농산물의 이미지를 구축, 유통 확대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1읍면 1특화사업 목표

조 군수는 "친환경농업이라는 큰 틀 아래 4대 명품 농산물을 육성하고 각 읍·면별로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키우는 '1읍면 1특화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4년후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산물 공급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활기차고 경쟁력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3년동안 171억원을 투자할 겸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시작되고 곡성 5일시장 이설 현대화사업, 곡성 소도읍육성사업, 옥과 거점면 종합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업무 메뉴얼을 본격 시행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 역점 시책중 하나다. 조군수는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경쟁방식의 입찰대행을 실시하는 등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기 쉬운 민간보조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해 행정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다.

맞춤형 노인 복지서비스

노인 및 교육문제에도 군정의 무게를 두고 있다. 공무원과 노인간 결연사업인 '소외계층 효사랑운동'과 '건강팔팔 마을만들기'를 통해 군민의 27%를 차지하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을회관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한글 등 문화교육과 직업교육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대나무 옻칠 공예 담양군이 대나무와 옻칠 공예품을 접목시키는 등 대나무 공예품 명품화에 주력하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박강용 남원시 옻 문화원장을 초청해 대나무 공예인 및 군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옻칠 공예교육을 실시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함평천지 한우' 육성 327억원 투입

함평군, 5년 계획 수립

함평군이 올해 함평천지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46억원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지난해 함평천지 한우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12년까지 모두 327억 7천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함평군은 2차 연도인 올해 함평천지 한우 혈통 보전에 4억원, 친환경 한우촌 조성 37억원 등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에 모두 45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청보리 재배농가에 t당 2만원, 한우 사육농가에 t당 1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보리 재배면적을 지난해 420ha보다 49.1% 증가한 626ha로 늘려, 조사료 1만 4천398t을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인증을 받는 데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내 함평군 전역을 한우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전남대학교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전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에 선정됐으며 함평천지 브랜드로 대형 유통매장인 신세계 이마트 전주점과 서울 워커힐호텔 등에 납품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광산구 '클린 행정' 박차

'주민 명예 감사관 제' 도입 區政 투명하게

광산구가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명예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광산구는 오는 2월 초 동 주민센터를 통해 복수 추천받아 동별로 1명씩 모두 19명의 명예 감사관을 위촉한다.

명예 감사관은 ▲주민 불편사항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공무원 불친절 ▲위험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재난 가능성 등을 제보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정책 ▲시행중 또는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들을 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구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클린 행정의 상징이자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도록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명예감사관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또 각 동 감사를 해당지역 명예감사관과 함께 진행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암행어사'의 자질과 능력을 배가 시킬 방침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가 민선 4기 들어 국가청렴위원회가 선정한 광주 유일의 청렴도 우수기관인 만큼 행정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명예 감사관제도 정착으로 클린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 나섰다

농림부서 30억 지원 생산·유통체계 개선

영광군이 지역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사진〉' 명품화에 나섰다.

영광 모싯잎 송편은 최근 농림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농림부 지원금은 모싯잎 송편의 생산·유통 체계 개선에 사용된다.

군은 모싯잎 송편 명품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유통·홍보 전문화로 지역 특산품을 관광 상품과 연계시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생산 기반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영광 모싯잎 송편은 일반 송편보다 크고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 명절 선물과 간식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강진 마량·제주 화북동 말 인연으로 자매결연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던 제주말(馬)의 인연으로 강진 마량과 제주 화북동이 최근 자매결연을 했다.

마량항은 조선시대 제주말이 육지에 첫 도착한 항구로 숙마(宿馬)마을 등 흔적이 남아 있다. 양 지자체는 이 같은 인연으로 2006년 제주~마량간 떼배 뱃길 재현 행사를 가진데 이어 제주말 2필 기증, 돌하르방(2기) 건립 등 다양한 '인연맺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지역 간 교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민간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등 실질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자매결연을 축하하기 위해 화북동에서 생산된 귤 1천500박스를 구입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해남군 미등록 섬 1천39만㎡ 찾아내

해남군이 재정 확충을 위해 미등록 도서의 등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남군은 다도해 미등록 도서와 위치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은 섬(비정위치 섬)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1천39만 4천㎡를 국유 재산으로 등록했다.

군은 지난 해 10월부터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구축한 '위성영상지리정보' 자료를 통해 누락된 토지를 조사하고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측량 방법으로 미등록 도서를 찾아냈다.

특히 영산강 간척 사업으로 확보된 마산면 연구리 하천 부지 내 192만 4천㎡의 뜬 섬에 대해서도 지적 공부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뜬 섬 간척지가 등록되면 공시지가 기준 76억 원에 상당하는 국유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인해 지방 교부세 증대효과와 대부료 수입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전발연, '월간 전남경제동향' 발표

전남발전연구원이 올해부터 매월 10일께 '월간 전남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월간 전남경제동향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작성하는 전남 관련 주요 경제지표를 재가공·종합한 자료로 최근 산업생산 동향, 경기전망(BSI), 투자 및 기업동향, 수출입 동향, 고용 동향, 물가 동향 등을 전국과 대비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작성됐다.

지난 10일 발간된 월간 전남경제동향 1호에 따르면 지역 경제는 전국 경제의 완만한 상승세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 고용사정의 개선 부진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전남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한 'JERI Brief'를 작성해 주요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매주 2회 제공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